

일본대학생의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

A Study on the Attitude about Seating Style b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박 병 순^{*}
Park, Byoung Soon
정 미 란^{***}
Jung, Mi Ran

안 옥 희^{**}
An, Ok Hee
김 재 경^{****}
Kim, Jae Kyung

I. 서 론

주생활 행위에 따른 기거양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좌식위주의 주생활을 영위하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나라는 동아시아권 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생활은 전통적으로 좌식 위주의 생활양식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의 기거양식은 유사점이 많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서구식 주택형태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현재에도 온돌의 장판바닥과 다다미라는 일본 고유의 바닥재를 고집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비록 장작을 지피고 구들을 사용하던 것이 파이프를 이용한 온수난방으로 바뀌고 부엌이나 마루, 거실의 바닥재가 변화하여도 방만은 장판지의 온돌방이 좋다는 의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일본 역시 주택 평면이 바뀌고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평면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방 1개만은 다다미방으로 하여야 한

다는 의식이 강하다(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 1994). 이러한 의식은 서구와는 달리 좌식위주의 기거양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렇게 한일 양국 모두 전통적인 기거양식을 고집하고 있으나 주택설비나 장비적 요소가 서구화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거양식으로는 공간사용에 부조화로운 상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본 연구(박 병순 외, 1997)의 후속으로 일본 대학생들의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을 알아 봄으로써 앞으로의 기거양식의 변화예측과 그에 따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 그 대상으로 한 것은 가까운 미래의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주역이므로 이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택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주생활 행위에 따른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지역적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동경도와 경도부에 소재

* 동경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안동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동주여전 여성교양학과 겸임교수

한 대학의 학생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임회경(1995), 장상옥(199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공간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공간별 주생활행위, 현재와 장래의 기거양식,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조사시기는 1997년 5월에서 9월이며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불가, 불실기재 등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1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설문에 대하여 본인의 의식이나 평가에만 의존하여 응하고 있으므로 실제 가족원 모두의 의식이나 평가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Ⅲ.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독립주택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형태도 자가 78.5%이다. 또한 방의 사용형태는 단독사용이 9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990년 현재 일본의 자가률은 61.7%이며 독립주택은 61.8%이므로(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 1994), 조사대상자의 주거수준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29(9.2)
	여성	286(90.8)
주택유형	독립주택	249(81.1)
	공동주택	58(18.9)
주택 소유형태	부분임대	11(3.6)
	집 전체임대	36(11.9)
	자가**	237(78.5)
방 사용형태	단독사용	272(96.5)
	공동사용	10(3.5)

* missing values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음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함.

2. 각 공간의 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주거내의 각 공간의 면적에 대하여 5점 리커트식 측정으로 평가와 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면적평가는 전체적으로 보통(3점)이하로 모두 좁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개실4(유틸리티)부엌·식당의 순으로 평가가 낮았다. 면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았는데 특히 개실4(유틸리티)부엌·식당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즉 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통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공간면적의 평가와 만족도

장소	점수(M) 면적의 평가	면적의 만족도
집 전체	2.93	2.95
거실	2.85	3.05
부엌·식당	2.72	2.88
개실1(주침실)	2.87	3.04
개실2(공부방 등)	2.82	3.00
개실3(노인실 등)	2.96	3.10
욕실	2.78	2.94
유틸리티	2.61	2.74
발코니	2.90	2.94
개실4	2.45	2.68

3. 각 생활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어떤 행위가 특정공간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선택한 15개의 생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주로 하는 공간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5개의 생활행위를 공동생활행위, 개인생활행위, 가사노동행위, 생리위생행위로 분류하여 각 생활행위가 주로 행해지는 공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거실에서는 물을 사용하는빨래행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생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란, 이웃

〈표 3〉 각 생활행위가 주로 행해지는 공간

N(%)

생활행위	공간	가실	부엌·식당	개실1	개실2	개실3	개실4	욕실	유틸리티	발코니	전체
공동 생활 행위	식사	117 (38.0)	184 (59.7)	7 (2.3)							308
	단란	260 (85.3)	26 (8.5)	15 (4.9)	4 (1.3)						305
	이웃·친구집대	195 (65.9)	8 (2.7)	29 (9.8)	42 (14.2)	10 (3.4)	6 (2.0)			6 (2.0)	296
	업무손님집대	187 (76.3)	4 (1.6)	17 (6.9)	11 (4.5)	11 (4.5)	15 (6.1)				245
개인 생활 행위	아동놀이	110 (47.6)		20 (8.7)	94 (40.7)	3 (1.3)	4 (1.7)				231
	휴식	156 (51.8)	7 (2.3)	73 (24.3)	59 (19.6)	6 (2.0)					301
	독서	69 (23.3)	7 (2.4)	99 (33.4)	112 (37.8)	4 (1.4)	5 (1.7)				296
가사 노동 행위	임강식품만들기	13 (4.7)	236 (84.8)	5 (1.8)	6 (2.2)			5 (1.8)	8 (2.9)	5 (1.8)	278
	세탁기빨래		12 (4.5)					123 (46.2)	111 (41.7)	20 (7.5)	266
	손빨래		35 (15.8)					115 (52.0)	65 (29.4)	6 (2.7)	221
	세탁물건조	10 (3.8)	4 (1.5)	8 (3.0)	4 (1.5)	3 (1.1)	6 (2.3)	48 (18.3)	35 (13.3)	145 (55.1)	263
	세탁물개키기	156 (51.6)	7 (2.3)	57 (18.9)	15 (5.0)	25 (8.3)	17 (5.6)	7 (2.3)	12 (4.0)	6 (2.0)	302
	바느질·재봉·옷손질	164 (56.0)	10 (3.4)	59 (20.1)	15 (5.1)	18 (6.1)	17 (5.8)		10 (3.4)		293
	다림질	170 (56.3)	10 (3.3)	62 (20.5)	13 (4.3)	25 (8.3)	15 (5.0)		7 (2.3)		302
생리 위생 행위	화장	28 (9.5)	6 (2.0)	96 (32.5)	84 (28.5)	4 (1.4)	7 (2.4)	45 (15.3)	25 (8.5)		295
전체		1635 (38.9)	556 (13.2)	547 (13.0)	459 (10.9)	109 (2.6)	92 (2.2)	343 (8.2)	273 (6.5)	188 (4.5)	4202

* missing values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해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 친구접대, 업무손님접대, 아동놀이, 휴식, 세탁물정리, 바느질·재봉·옷손질, 다림질은 다른 공간에서 행하는 비율보다 거실에서 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주생활행위를 단순히 빈도로 계산할 경우, 거실에서는 38.9%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행위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확보와 설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엌에서는 당연히 열장식품만들기와 식사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손빨래도 15% 행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순간온수기의 설치때문으로 생각되며, 유틸리티에서의 수전설치 여부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율이 낮기는 하나 아동놀이 이외의 모든 행위가 부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엌을 단순히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공간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하겠다.

개실(1~4)에서는 개인생활행위와 생리위생행위인 화장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개실1(주침실)의 경우에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빨래 이외의 모든 생활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안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실에서는 손빨래, 세탁기빨래, 세탁물건조, 화장 등의 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빨래행위가 욕실에서 행해지는 것은 욕실내의 세탁기설치, 급배수의 용이때문이며 세탁물 건조가 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욕실내의 온풍을 이용한 세탁물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의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틸리티의 설치는 일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데(梁頼 외, 1995), 이곳에서는 세탁기빨래, 손빨래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코니에서는 세탁물의 건조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망 기거양식을 '항상 좌식을 한다' 1점에서 '항상 입식을 한다'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현재와 희망 기거양식

생활행위		기거양식(M)		
		현재	희망	차이*
공동생활행위	식사	3.30	3.74	0.44
	단란	2.25	3.04	0.79
	이웃·친구접대	2.33	3.13	0.80
	합계	2.63	3.30	0.67
개인생활행위	취침	3.76	4.14	0.38
	휴식	2.39	3.07	0.68
	공부	3.72	4.05	0.33
	합계	3.29	3.75	0.46
가사노동행위	일상적인 식사준비	4.85	4.80	-0.05
	세탁	4.54	4.54	0.00
	손빨래	3.42	3.79	0.37
	세탁물개키기	1.60	1.83	0.23
	바느질·재봉·옷손질	2.06	2.52	0.46
	다림질	2.66	3.27	0.61
	합계	3.19	3.44	0.25
생리위생행위	화장	3.19	4.05	0.86
	세면	4.72	4.81	0.09
	용변	4.32	4.45	0.13
	목욕	2.52	2.21	-0.31
	합계	3.69	3.88	0.19
전체		3.23	3.59	0.36

*희망기거양식의 평균값에서 현재기거양식의 평균값을 뺀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현재와 희망기거양식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4. 각 생활행위에 따른 기거양식

16종류의 주생활행위에 대하여 현재와 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기거양식은 평균 3.23점으로 입식과 좌식의 중간정도이며 희망기거양식은 현재보다 입식화가 조금 진행된 3.59점이다.

생활행위별로 보면 생리위생행위가 입식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3.69점), 또 이를 희망하고 있다(3.88점). 한편 공동생활행위는 현재 좌식의 기거양식을 하고 있으며(2.63점), 앞으로는 약간 입식을 원하고 있었다(3.30점). 현재와 희망하는 기거양식의 차이는 입식화가 가장 진행된 생리위생행위가 가장 작으며, 현재 좌식기거양식인 공동생활행위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입식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생활행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식사준비, 세면, 세탁, 용변 등의 행위는 입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탁물정리, 바느질·재봉·옷손질, 단란, 이웃·친구접대 등은 좌식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희망하는 기거양식중 세면, 일상적인 식사준비, 세탁, 용변, 취침, 공부, 화장, 손빨래, 식사의 순으로 입식을 원하고 있으며 세탁물정리, 목욕, 바느질·재봉·옷손질 등은 좌식을 원하고 있다. 현재의 기거양식과 희망하는 기거양식을 비교해 보면 그 경향성은 유사하며 일상적인 식사준비와 목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현재보다 더 입식화를 원하였다. 목욕의 경우에는 '항상 샤워한다'를 입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욕조사용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입욕특성과 달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와 희망 기거양식의 차이는 화장이 0.8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개실에 두는 입식 화장대의 보급이 요망된다. 그외 이웃·친구접대, 단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도

각 생활행위에 따른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리커드측정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현재 기거양식의 만족도

생활행위		만족도	M
공동생활행위	식사		3.67
	단란		3.55
	이웃·친구접대		3.33
	합계		3.52
개인생활행위	취침		3.78
	휴식		3.55
	공부		3.70
	합계		3.68
가사노동행위	일상적인 식사준비		3.89
	세탁		3.89
	손빨래		3.58
	세탁물개키기		3.66
	바느질·재봉·옷손질		3.52
	다림질		3.47
	합계		3.67
생리위생행위	화장		3.46
	세면		3.91
	용변		3.82
	목욕		3.72
	합계		3.73
전체			3.66

현재의 기거양식은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하는(3.66점) 경향을 보였으며, 생리위생행위(3.73점)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공동생활행위(3.52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생활행위별로 보면, 세면, 식사준비, 세탁, 용변, 취침, 목욕, 공부 등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친구접대, 화장, 다림질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도를 현재 행하고 있는 기거양식과 관련지어 고찰하면, 입식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일상적인 식사준비, 세

탁, 세면, 용변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좌식화 경향을 보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단란, 이웃·친구접대, 휴식, 세탁물정리, 바느질·재봉·옷손질, 다림질, 목욕 등의 행위이다. 따라서 생활행위에 따라 만족하는 기거양식이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각 생활행위에 만족하는 기거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IV. 결 론

앞으로의 기거양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315명의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거양식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거실과 개실1(부부침실)에서는 물사용을 하는 빨래 행위외의 대부분의 생활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곳의 충분한 크기 확보와 다양한 생활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공간계획을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해 약간 만족하고 있으나 행위에 따라서는 현재의 기거양식과 희망하는 기거양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으므로 공간사용시에 부적응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과 설비계획시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러한 행위로는 화장, 이웃·친구접대, 단란, 휴식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장상옥(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박병순·안옥희·정미란(1997), 대학생의 주생활행위에 따른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창립50주년기념학술대회논문집, p.66.
- 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1994), 日本の住宅がわかる本, PHP研究所
- 任喜敬(1995), 韓國都市集合住宅の住様式および住空間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 博士學位論文.
- 梁賴度子 외 2명(1995), 住環境科學, 朝倉書店.

